

지역 전략산업 AI 전환 이끌 실무형 인재 양성

광주인력개발원·대학·기업체 등 참여 협의체 출범

채용연계형 맞춤 교육·산학 프로젝트 등 단계 추진

광주·전남지역 전략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돕는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한 'AX실무인재양성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에 따르면 협의체는 대학, 기업, 교육청,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연계해 AI·반도체 산업을 포함한 AX 분야에서 기업 수요에 맞춘 실무형 인재를 공동 양성하고 채용까지 연계, 지역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협의체 구성 협약식에는 ㈜에이퓨처, ㈜에스오에스랩, ㈜에이직덴트, 수퍼게이트㈜, 전남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조선

대학교, 호남대학교, 광주대학교, 한국인공지능협회, 광주시교육청,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 목적은 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공동 설계·운영해 지역 전략산업 맞춤형 인재를 공급하는 것이다.

협의체는 기업이 제시한 현장 실무과제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기초·전공역량을 바탕으로 문제해결·응용 역량을 겸비한 인재에 나선다.

또 채용 연계형 맞춤 교육 및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현장 실습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광주·전남지역 전략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돕는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한 'AX실무인재양성협의체'가 최근 공식 출범했다.

광주상사가 제시한 AX 인재양성 로드맵을 보면 오는 2027년까지 기업 요구 기반 PBL(Project-Based Learning) 개발, 모듈형 시범교육 운영(1~6개월), AX 실무정규과정 개설, 기업 연계 인턴십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후에는 AX 전문트랙을 신설하고 상설위원회 운영, 취업 매칭 고도화 등으로 확산을

도모한다. 목표는 3년간 교육과정 18개 개설, 참여기업 30개사, 교육생 330명, 산학프로젝트 50건 이상이다.

홍성훈 전남대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장은 "지역 대학생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지역에서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며 "기업이 제시하는 문제를 학생들이

프로젝트 형태로 해결하는 학습이 중요한 만큼, 산학 프로젝트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무상 광주인력개발원장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대학·기업·지자체가 하나의 운영공동체처럼 움직여야 한다"며 "기관별 부족한 부분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고, 교육부터 취업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상의 광주인력개발원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반도체설계, 로봇, 클라우드 등 첨단분야의 청년취업 교육과 재직근로자 교육에 주력하며 지역 직업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모든 교육 과정은 전액 정부지원으로 운영되며 현재 디지털트윈, 시스템반도체, 지능로봇 3개 과정의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ECONOMY

2025년 8월 11일 월요일

순곡주 '진도홍주 58도'

전남도, 8월 전통주 선정

전남도는 8월을 대표하는 전통주로 진도군 대대로영농조합법인(대표 김애란)의 '진도홍주 58도'를 선정했다. 생산자인 대대로영농조합법인은 재래식 제조법과 한국과 일본의 주류 전문가들이 연구한 첨단 주조 기법을 접목해 '진도홍주38도', '진도홍주 아라리', '진도홍주 루비콘' 등의 다채로운 제품을 개발해 선보였다.

그 결과 인천, 싱가포르 등 해외 면세점에 입점해 2억 원의 수출 성과를 거뒀으며, 미국과 중국 등을 집중공략해 수출량을 확대하고 있다.

'진도홍주58도'는 진도 쌀과 지조로 빚은 순곡주로 시간이 지날수록 풍미가 좋아지며 장기간 숙성으로 부드러운 향, 강하고 깊은 맛이 특징이다.

홍주의 주재료인 지조는 산상에 버금가는 신비한 약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붉은색 종류주로, 맛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매력적이며 독특한 향기를 낸다.

특히 고도주로 만기지 않을 만큼 부드러운 목 넘김이 좋으며, 알코올 함도 강하지 않아 깔끔하게 즐길 수 있다.

얼음과 함께 온더록스로, 맥주, 탄산음료, 토너워터 등과 함께 칵테일이나 하이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진도홍주는 천년 세월 고유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술"이라며 "전남 지역 전통주 브랜드의 가치 향상과 판로 확대 등을 통해 전통주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도홍주는 지난 1994년 전남도 무형문화재 제26호로 지정됐으며, 2024년 남도 우리술 품평회에서 종류주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진도홍주58도'는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전화로 구매할 수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사학연금공단-웰파크호텔

할인 등 제휴복지 업무협약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최근 전북 고창 웰파크호텔에서 호텔과 사학연금 가입자의 복지 증진 및 여가·휴양 기회 확대 위해 제휴복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학연금은 민간기업과 연계함으로써 사학연금 가입자와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사학연금 고객은 웰파크호텔의 객실, 스파, 연회장 등 주요시설을 정상가 대비 최대 개인 57%, 단체 68%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예약과 할인 혜택 등 자세한 이용 방법은 사학연금 통합복지플랫폼(https://welfare.t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맞춤형 안내와 편의 제공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송하중 사학연금 이사장은 "웰파크호텔과의 협약이 사학연금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여가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직원인 여가와 관련해 보다 세밀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TP,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평가 '우수'

3년 연속 성과···국비 18억원 추가 확보

광주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A등급)'를 받아 내년도 지역사업 국비예산 18억20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산업·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균형발전정책이다. 매년 사업계획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예산이 차등 지원된다.

광주TP는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 지역 내 기업육성기관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했으며, 지역혁신기관(광주TP, 광주 지역산업진흥원)이 성과를 관리했다.

그 결과, 성과목표 부문에서 신규교육

258명으로 14개 시·도 중 목표달성도 1위를 3년 연속 차지했다. 또 사업매출액 981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74억원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우수 성과사례로 ㈜현대하이텍, ㈜타디엘이 선정, 성공 사례 확산을 통해 지역 기업과 기업육성기관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광주TP 관계자는 "이번 성과평가 결과는 지역경제 전반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지역혁신기관 등의 지역산업 육성계획이 지원 성과로 이뤄진 결과"라며 "앞으로 지역산업의 체질개선과 기업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혁신성과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NH농협은행 광주본부부는 최근 본부 청소년금융교육센터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체험형 금융교육 프로그램 '가족경제 금융교실'을 운영했다.

농협은행 광주본부, '가족경제 금융교실' 운영

시교육청 공동 추진···대학생봉사단 지원

NH농협은행 광주본부부는 최근 본부 청소년금융교육센터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체험형 금융교육 프로그램 '가족경제 금융교실'을 운영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시민협력지원원과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금융 태도를 함양하고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학부모와 함께 참여해 소통과 실습 위주로 구성됐다.

교육은 저축, 소비, 용돈 관리 등 생활 속 금융지식과 은행업무 체험으로 이뤄졌다. 참가자들은 직접 은행원이 되어 고객 응대, 통장 개설, CD/ATM 기기 이용 등을 실습하며 실질적인 금융 경험을 쌓았다.

또한 NH농협은행 대학생봉사단 'N돌핀' 13기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했으며, 현장에서는 짬뽕수와 짬뽕 등 국산 쌀을 활용한 간편 스낵을 제공해 '우리 쌀 소비 촉진'이라는 사회적 가치도 함께 전했다. 이승률 기자 photo25@



로또 1등 15명···당첨금 각 19억1000만원

제1184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4, 16, 23, 25, 31, 37'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2'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5명으로 19억1006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

치한 2등은 95명으로 각 5028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115명으로 153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천556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57만6710명이다. 연합뉴스

금호타이어, 화재사고 피해 주민 보상 '순조'

대인 65.5% 합의···2405건

오늘까지 2300건 지급 예정

금호타이어는 광주공장 화재사고 피해 보상이 한달여 만에 합의를 65.5%를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5월 17일 발생한 광주공장 화재사고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자체 보상을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화재사고 발생 이틀 후인 19일부터 6월 10일까지 광산구청과 함께 피해 접수를 실시한 결과, 총 2만 199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최종 8000여건이 보상 건으로 접수됐으며 대인피해 5371건에 대한 우선 심사를 진행했다.

현재까지 심사가 완료된 3674건 중 2405건의 합의가 완료돼 합의율은 65.5%를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1804건

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완료됐으며, 지난 5일까지 합의 완료된 496건에 대해서는 오는 11일 지급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투입해 신속한 보상에 집중하고 있다"며 "심사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합의 즉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HD현대삼호, 변전소 복구···전력 공급 정상화

HD현대삼호가 최근 화재 피해를 입은 변전소를 조기 복구해 전력 공급을 정상화했다.

HD현대삼호는 최근 변전소 응급 복구를 완료하고 회사 야드 전체에 전원 공급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변전소 화재 직후 지자체

와 관공서 및 관계 기관과 신속히 협력해 전력 설비를 조기에 설치했으며, 전력망 복구가 이뤄지면서 전체 전원의 상시 공급이 가능해졌다. 특히 여름휴가 기간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협력사 관계자들까지 피해 현장 복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재건을

앞당기는 등 크게 기여했다.

김재을 HD현대삼호 사장은 "휴가기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 앞장서준 임직원 및 협력사 관계자 여러분을 비롯해 지자체, 관계기관의 긴밀한 지원으로 복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다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및 재발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영안·한정호 기자 hck1342@gwangnam.co.kr